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 설 연휴 ‘권역별 여행’ 즐겨요

백운산권·구봉산권·섬진강권 3개 권역 여행 코스 추천 구봉산전망대·인서리공원·집와이어 등 연휴 정상 운영

광양시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최장 9일까지 늘어난 설 명절 황금연휴를 겨냥한 권역별 광양여행 큐레이션을 내놨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동 시간은 줄이고 즐거움은 늘리는 취향별 동선 짜기 꿀팁 제공을 위해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3개 권역에 숨겨진 보물같은 여행지를 소개했다.

먼저 백운산과 광양읍을 아우르는 백운산권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전남도립미술관, 인서리공원 등 자연과 역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품격 웰니스 여행지다.

해발 1천222m, 4대 계곡을 거느린 백운산은 8개 등산코스, 126.36km에 달하는 9개 둘레길이 개설돼 있으며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개장을 열고 있다. 백운산둘레길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등은 푸른 원시림을 걸으며 명절 피로를 풀고 과

식하기 쉬운 명절 후유증을 해소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광양읍은 원도심으로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사, 인서리공원 등 오랜 시간을 간직하고 새롭게 변신한 곳이 많다.

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 일본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남부연습관사 등 설 당일일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광양의 원도심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인서리공원은 한옥을 리뉴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 카페, 아트샵, 한옥스테이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오랜 골목이 주는 정겨움과 낭만이 가득한 인서리공원은 설 당일일을 비롯해 연휴 전 기간 정상 운영된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1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를 보존한 정병옥 가옥.
2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배알도 야경.
3 광양읍의 근대문화유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사. <광양시 제공>

광양은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이라는 관광슬로건에 걸맞은 아름다운 풍경과 찬란한 야경을 자랑한다.

해발 473m ‘구봉산전망대’에 올라서면 질푸른 광양만을 중심으로 이순신대교, 여수산단, 순천외성, 남해대교 등을 360°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빛나는 구봉산전망대는 광양제철소, 이순신대

교, 광양항 등이 반짝이는 은하수처럼 광양만에 물결치며 찬란한 야경을 완성한다.

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아우르는 섬진강권은 짜릿한 액티비티와 별빛 야경, 시가 흐르는 낭만플랫폼이다.

광양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망덕

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88m 집와이어로 설 연휴 전 기간 정상 운영된다.

이 밖에 별헤는다리과 해맞이다리를 잇는 낭만플랫폼인 배알도 섬 정원과 윤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직해 빛을 보게 한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윤동주 시 정원’이 있는 망덕포구는 느긋하게 걸을

수 있는 감성충전소다.

김미란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 그리고 광양만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백운산둘레길, 섬정원, 포구 등 걷기 좋은 로드가 풍부하다”며 “황금연휴인 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광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담양 창평전통시장 재건축공사 ‘첫 삽’

총사업비 98억 투입...일반상점·문화복합공간 등 구성

담양군이 창평전통시장 재건축공사(조감도)의 첫 삽을 떴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 창평전통시장 재건축 기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병노 담양군수와 이계호 국회의원, 정철원 국회의원 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군의원, 조성순 창평시장장 인회 회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2022년 12월 화재 이후 임시시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던 창평전통시장은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0억원, 2024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38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98억원(도비 55억원, 군비 43억원)을 투입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새롭게 지어질 창평전통시장은 창평면 창평리 209-1번지 일원 3천504㎡(1천60평)에 지상 2층, 총면적 2천760㎡(835평) 규모로, 지역 상권의 중심지이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1층은 일반상점 44개소, 휴게편의시설(임산부휴게실), 문화복합공간(중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2층은 청년몰 6개소와 관리사무소, 화장실, 전담마루(야외 경관 조망이 가능한 복도) 등을 갖추게 된다.

이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지역민, 공무원 등 150명과 함께 창평 임시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 군수는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제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담양군은 이번 행사에 이어 22일에는 담양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민생 안정 대책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담양군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월 한 달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당 금액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병노 군수는 “새롭게 단장하는 창평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지역의 대표 명소가이자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다가오는 명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가 가득하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여수시새마을회, 설 명절 맞아 온기 나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취약계층에 라면 530박스 전달

여수시새마을회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여수사업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은 전날 오전 여수시새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동근 여수시새마을회 회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여수사업장 관계자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여수사업장이 후원한 라

면 530박스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후원 물품은 여수시새마을회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손길을 더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동근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설 명절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여수사업장 관계자는 “여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수시새마을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국 지자체 13곳 순천에 모였다...문화도시 사업 ‘첫발’

문체부 공동연수회...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등 논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13개 지자체가 순천에 모여 문화 균형 발전과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지방시대 위원회 2025 워크숍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13개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인 올해 첫 행사로 우동기 지방위 위원장, 용호성 문

체부 차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회가 순천에서 열린 이유는 정월박달회를 통해 생태와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순천시가 문화콘텐츠와 생태자원을 융합한 선도 모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회의는 세계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서식지로 유명한 순천만습지에서 열린 순천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날 순천시는 문화콘텐츠 분야 유일의 문화도시로써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시민 향유를 3대 중점 전략으로 삼아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이번 연수회가 문화 균형 발전과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습지 기반 위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역 맞춤형 육성 전략 등 논의

고흥군이 지역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관광형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계획이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휴양실에서 공영민 고흥군수와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형 도심항공교통(UAM) 중장

기 로드맵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중장기 계획과 전략사업 발굴, 관광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항로 분석 및 버티포트 입지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친환경·저소음 항공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을 고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항공인프라를

앞세워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관광형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흥에는 국내 첫 버티포트와 실증 시설이 조성돼 지난해 8월부터 6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개발지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규제 특례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이용해 국토교통부 주관 실증 비행이 진행됐다. /박현진 기자

화순군,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내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24일 군청 뒤편 주차장서

화순군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 24일에는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설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특별 마련하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청 직거래장터는 2024년 6월 양 지자체 간 우호 교류 및 상생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화순군-광주

동구’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 및 협력 과제로 지난해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처음 진행됐다.

화순군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인 한우, 파프리카, 샤인머스켓, 딸기, 버섯, 떡, 막걸리, 꿀, 오리다 등 80여 가지 품목으로 업체가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이번 직거래장터는 화순팜(화순농특산물 소평몰)에서 20% 할인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해 가족이나 오랜 장바구니 물가로 힘든 주민들에게 새해 희망과 변화의 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화순군청 직거래장터는 화순문화원에서 흥겨운 사물놀이로 개시하고, 오전에는 장을 보며 퓨전국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터에서는 떡메치기 체험 행사, 인절미떡을 무료 시식, 전부치기 행사도 진행하는 등 먹거리와 볼거리 역시 다양하게 준비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 백양사·백암산, 올해도 주차비 ‘무료’

김한중 군수 “북부권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장성군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공원 관할 주차장인 백암·가인·남창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추가 협약을 체결한 사설 백암제1주차장을 비롯해 확보된 무료 주차공간은 총 4곳 978면에 이른다. 협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주차장 무료로

를 시행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장성 백양사와 백암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백양사·백암산 인근 주차장 전면 무료화 시행이 북부권 관광수요 확대와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김문태 기자